

원환 크기의 변화에 따른 균등원통교각 주위의 세굴심 감소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Reduction Effect of Scour Depth arounding Uniform Cylindrical Pier with Various Size of Circular Collar

심 우 배* / 송 재 우**
Sim, Ou Bae / Song, Jai Woo

Abstract

This study is to propose reduction effect of scour depth and a optimum size of circular collar through experimental analyses with various collar sizes. To do so, we carried out hydraulic model experiments. In the case of with considering the collar, the effect of reduction of scour depth increased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collar size. When size of collar is 2 as the ratio of collar diameter(W) to pier diameter(D), scour depth is decreased about 67% and deposition height is increased about 70%. The optimal size of collar proposed in this study is W/D=2 by analyzing reduction effect of scour depth, size of scour hole, and deposition height

Key words : circular collar, local scour, reduction effect, deposition height

요 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원환에 따른 균등원통교각 주위의 세굴심을 분석하여 세굴심 감소효과 및 원환의 적정 크기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교각에 원환을 설치한 경우 원환을 하상 위보다 하상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으며, 원환의 크기가 클수록 세굴심 감소 효과가 뚜렷하였다. 교각 직경에 대한 원환 직경의 비(W/D)가 2인 경우 약 67% 세굴심이 감소하였으며, 퇴적고는 약 70%정도 증가하였다. 세굴심 감소 효과, 세굴공 및 퇴적고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W/D=2인 원환을 최적 크기로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 원환, 국부세굴, 감소효과, 퇴적고

* 정희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조빙연구위원(obsim@sdi.re.kr)
* 정희원 ·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jwsong@wow.hongik.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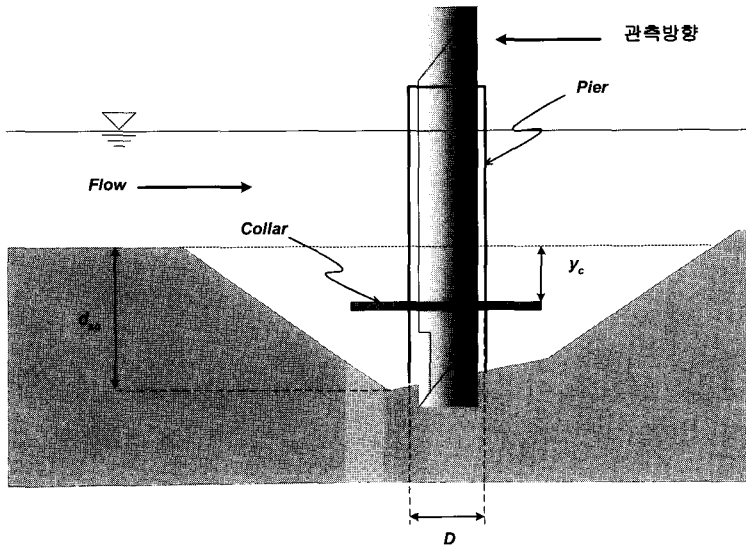


그림 2. 교각모형 개념도

표 1. 원환의 위치별 최대세굴심 및 세굴심 감소효과
($Fr=0.4$, $d_s=70$ mm)

W/D	y_c/d_s	d_{sc} (mm)	최대세굴심 감소효과(%)
1.25	-0.77	66	8
	-0.39	65	10
	0.00	61	15
	0.39	56	22
	0.77	63	13
1.5	-0.77	60	17
	-0.39	58	19
	0.00	54	25
	0.39	54	25
	0.77	63	13
2	-0.77	59	18
	-0.39	48	33
	0.00	35	51
	0.39	24	67
	0.77	51	29
3	-0.77	54	25
	-0.39	51	29
	0.00	08	89
	0.39	44	39
	0.77	51	29

면의 퇴적고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접근유속은 3차원 유속계인 ADV(Acoustic Doppler Velocimeter)를 이용하여 교각 전면부에서 측정하였으며, 국부세굴심은 잠망경의 원리를 이용한 세굴심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1mm의 해상변동이 없을 때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교각 및 세굴심 측정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 D 는 교각직경, d_{sc} 는 원환 설치에 따른 최대세굴심, y_c 는 하상에서 원환까지의 거리이다.

2.2 실험결과

F_r 수, 하상재질의 조건을 동일하게 한 후, 원환

의 크기와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균등한 원통 교각 주위의 세굴심, 세굴폭 및 교각 후면의 퇴적고의 위치를 측정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2는 원환 설치 전·후의 균등원통 교각에 대한 실시간 세굴심 측정 결과이며, 원환의 위치는 하상에 접한 경우이다. 여기서, d_s 는 원환 설치전 최대세굴심을 나타낸다.

3. 비교 및 분석

그림 3은 원환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원통 교각에 크기가 다른 원환을 하상에 설치하였을 때의 실시간 세굴심을 나타낸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세굴은 실

표 2. 원환 설치 전·후의 실시간 세굴심(단위:mm)
($W/D=2, F_r=0.4$)

실시간 (분)	원환무	W/D=1.25	W/D=1.5	W/D=2	W/D=3
0.5	41	5.0	2.0	9.0	0.0
1.0	46	34	30	13	5.0
1.5	49	36	35	16	5.0
2.0	53	41	39	24	5.0
2.5	56	45	42	25	5.0
3.0	57	46	44	25	5.0
4.0	61	48	47	25	5.0
5.0	65	50	49	26	5.0
10	69	55	52	27	6.0
15	68	57	53	29	6.0
20	69	58	54	30	7.0
25	70	60	54	32	8.0
30	72	61	54	35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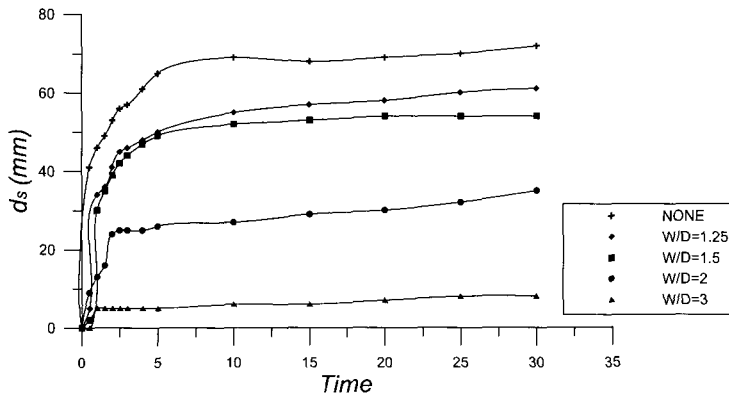


그림 3. 원환 크기에 따른 실시간 세굴심($y_c/d_s=0$)

험초기에 급격하게 발생하였으며, 원환의 직경이 클수록 세굴심 감소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원환 설치에 따라 세굴심 감소효과 이외에 최대세굴심 발생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그림 4는 W/D에 따른 최대세굴심 감소효과를 도시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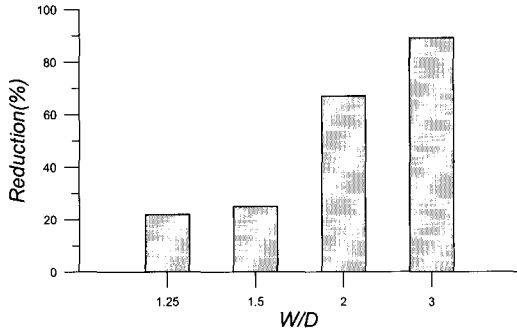


그림 4. W/D에 따른 최대세굴심 감소효과

그림 4에서, 원환 크기에 따른 최대세굴심 감소 효과는 W/D=1.25인 경우에는 약 22%, W/D=1.5인 경우 약 25%, W/D=2인 경우 약 67%, W/D=3일 때 약 89%로 나타났다. W/D가 증가함에 따라 세굴심 감소효과가 증가하였으나 W/D=3인 경우에는 거의 세굴이 발생하지 않았다.

표 3은 원통 교각 주위 45°간격으로 측정한 세굴 폭의 크기와 교각 후면인 경우에는 최대 퇴적고 및 발생위치를 나타낸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환의 크기가 클수록 세굴공의 폭이 작아졌으며, 교각 후면의 최대 퇴적고의 발생위치는 원환 유무에 관계없이 유사하나 원환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퇴적고는 약 20%~150% 증가하였고 W/

D=2인 경우에는 약 70% 증가하였다.

원환은 흐름을 원환 위와 아래의 두 영역으로 분할시킨다. 원환 위의 영역에서는 하강류의 강도를 줄이는 장애물로서 작용하며, 원환 아래 영역에서는 하강류 감소로 인한 마체형화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4에서와 같이 원환은 교각 전면부의 최대세굴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환은 교각 하류부에 후류와(wake)를 발달시켜 교각 하류부의 세굴을 조금 더 발생시키고 퇴적고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Kumar(1999)의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

그림 5는 원환 설치 유무에 따른 세굴공 및 퇴적고의 형상을 나타낸다.

그림 6은 원환 설치 위치에 따른 최대세굴심 변화도이다. 원환 크기에 따라 원환을 하상 위, 하상, 하상 아래로 위치를 변화시켜가면서 원환에 의한 세굴심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3과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환을 하상 위보다 하상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원환의 크기가 클수록 세굴심 감소효과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원환의 크기와 설치 위치에 관계없이 W/D=2인 경우에 가장 작은 세굴심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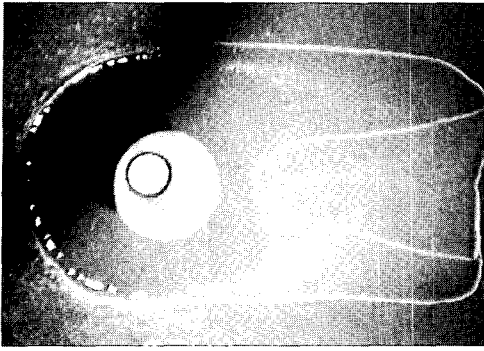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원환에 의한 세굴심 감소효과는 원환의 크기와 원환의 설치 위치에 좌우된다. 그러나 원환의 크기만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경제성이나 시공성에 문제가 되므로 세굴심 감소효과, 세굴공 및 퇴적고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W/D=2인 원환을 원환의 최적 크기로 제안한다.

표 3. 교각 주위의 세굴폭 및 퇴적고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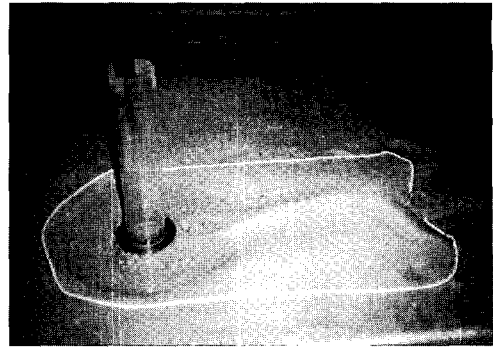
($y_c/d_s=0.0$)

구분	원환무	W/D=1.25	W/D=1.5	W/D=2	W/D=3
전방	100	78	92	40	30
45°	96	77	91	40	30
측방	111	86	92	45	30
135°	130	98	105	50	35
후방퇴적길이 (퇴적고)	246(10)	230(25) 150%	245(15) 50%	250(17) 70%	272(12) 20%

주) ()안은 퇴적고이며, 배분율(%)은 원환 설치에 따른 퇴적고의 증가율임.



(a) 원환 설치전



(b) 원환 설치후

그림 5. 원환 설치 유무에 따른 세굴공 및 퇴적고의 형상(W/D=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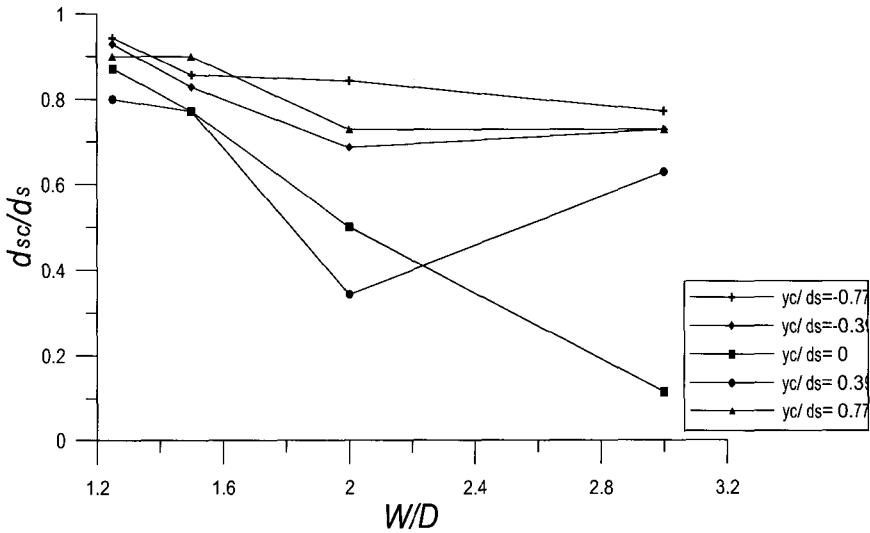


그림 6. 원환 설치 위치에 따른 최대세굴심 변화

4. 결 론

원환 크기에 따른 균등한 원통교각 주위에서 세굴심을 측정하여 세굴심 감소효과와 최적의 원환 크기를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환 설치 전·후의 실시간 세굴심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세굴은 실험초기에 급격하게 발생하였으며, 원환의 직경이 클수록 세굴심 감소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원환은 세굴심 감소효과 이외에 최대세굴심 발생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었으며, 원환 크기에 따른 최대세굴심 감소효과는 교각 직경(D)에 대한 원환 폭(W)의 비 즉, W/D=1.25인 경

우에는 약 22%, W/D=1.5인 경우 약 25%, W/D=2인 경우 약 67%, W/D=3일 때 약 89%로 나타났다. W/D가 증가함에 따라 세굴심 감소효과가 증가하였으나 W/D=3인 경우에는 거의 세굴이 발생하지 않았다.

2. 원환의 크기가 클수록 세굴공의 폭이 작아졌으며, 교각 후면의 최대퇴적고의 발생위치는 원환 유무에 관계없이 유사하나 원환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퇴적고는 약 17%~60% 증가하였고, W/D=2인 경우에는 약 41% 증가하였다. 원환은 교각 전면부의 최대세굴심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원환은 교각 하류부에 후류와(wake)를 발달시켜 교각 하류부의 세굴을 조금 더 발생시키고 퇴적

고를 증가시키게 된다

3. 원환 크기와 설치 위치에 따른 세굴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원환을 하상 위보다 하상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고 원환의 크기가 클수록 세굴심 감소효과가 뚜렷하였다. 원환의 크기와 설치 위치에 관계없이 $W/D=2$ 인 경우에 가장 작은 세굴심을 얻었으며, 세굴심 감소효과, 세굴공 및 퇴적고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W/D=2$ 인 원환을 최적 크기로 제안하였다.

참 고 문 헌

- 서울특별시(1998), “한강교량기초 수리모형실험 보고서”.
- 심우배, 임장혁, 조형준, 송재우(2000), “하상재료에 따른 원환보호공법 적용”,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pp. 604~609.
- 심우배, 최인호, 강예석, 송재우(1999). “원환을 이용한 원형교각 주위의 국부세굴 방지 효과”, 대한토목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pp. 121~124.
- Breusers, H. N. C., Nicollet, G., and Shen, H. W.(1997), “Local Scour around Cylindrical Piers”, *Journal of Hydraulic Research*, Vol. 15, pp. 211~252.
- Dey, S., Bose, S. K., and Sastry, G. L. N.(1995), “Clear Water Scour at Circular Piers: A MODEL”,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ASCE, Vol. 121, No. 12, pp. 869~876.
- Ettma, R.(1980), *Scour at bridge Piers*, Report No. 216, School of Engineering, The University of Auckland, Auckland.
- Melville, B. W. and Coleman, S. E.(1999), *Bridge Scour*, Water Resources Publications, LLC.
- Raudkivi, A. J. and Ettma, R.(1983), “Clear-Water Scour at Cylindrical Pier”,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ASCE, Vol. 109, No. 3, pp. 338~350.
- Richardson, E. V., et al.(1993), *Evaluating Scour at Bidges*, Hydraulic Engineering Circular No. 18, FHWA-IP-90-017, February.
- Tanaka, S. and Yano, M.(1967), “Local Scour around a Circular Cylinder”, *Proc. 12th Congress of IAHR*, 3, Fort Collins, Colorado, USA, pp. 193~201.
- Kikkawa, H., et al.(1971), “Study on Scouring around a Bridge Pier and Its Prevention”, *Proc. of JSCE*, Vol. 194, pp. 83~90.
- Kumar, B. V., Raju, K. G. and Vittal, N.(1999), “Reduction of Local Scour around Bridge Piers using Slots and Collars”,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ASCE, Vol. 125, No. 12, 1999, pp. 1302~1305.
- Dargahi, B.(1990), “Controlling Mechanism of Local Scouring”,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ASCE, Vol. 116, No. 10, October, pp. 1197~1214.
- Yanmaz, A. M. and Altmblick, H. D.(1991), “Study of Time-Dependent Local Scour around Bridge Piers”,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ASCE, Vol. 117, No. 10, pp. 1247~1268.